



Cambridge IGCSE™

FIRST LANGUAGE KOREAN

0521/11

Paper 1 Reading

May/June 2020

INSERT

2 hours

INFORMATION

- This insert contains the reading passages.
- You may annotate this insert and use the blank spaces for planning. **Do not write your answers** on the insert.

유의사항

- 이 첨부 시험지에 읽기 시험 문제 관련 지문이 있습니다.
- 이 첨부 시험지 공간에 표시를 하거나 연습 답안을 써도 됩니다. 이 첨부 시험지에는 **채점될 최종 답안을 쓰지 마십시오.**



This document has 8 pages. Blank pages are indicated.

Text A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1 번 문제에 모두 답하십시오.

Text A

다음은 김영하가 2005년에 발표한 《칼랄라 하우스》 중 일부입니다.

일전에 본 어느 책에서 저자는 비행기에 대해 이렇게 논평하고 있었다. “빠르다는 것 말고 좋은 게 뭐 있나? 자리는 좁고 탑승 절차는 복잡하고 기내식은 천편일률적이다. 갈아타기라도 하면 더 고역이다.” 맞는 말씀. 기술의 발전은 말 그대로 ‘발전’이 아니라 다른 가치들 - 여유, 인간의 존엄, 널찍한 공간 등 -을 희생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일종의 기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아무 데서나 통화할 수 있다는 것 말고 휴대폰이 좋은 게 뭐 있습니까?” 휴대폰으로는 못을 박을 수도 없고 전기를 만들 수도 없다. 유선전화보다 안정성이나 통화 품질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바로 휴대전화다. 오직 아무 데서나 걸 수 있다는 것, 이게 휴대전화의 거의 유일한 강점이다. 물론 폐해는 너무도 많아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5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친필과 타이핑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일까? “빠르고 저장 가능하다는 것 말고 컴퓨터가 좋은 게 뭐 있습니까?”라고. 글씨, 사실은 이것 말고도 장점은 더 있을 것이다. 편집이 쉽다는 점, 다른 형태로 바꾸기 쉽다는 점, (요즘 들어선) 전송이 쉽다는 점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로 글을 쓰면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다. 우선 ‘손으로 쓰기’는 폰트의 다양함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들을 압도한다. 만인만색! 그리고 글자의 크기의 다양함과 섬세함에서도 ‘손으로 쓰기’가 단연 앞선다. 10포인트니 11포인트니 하는 구분이 ‘손으로 쓰기’에는 없는 것이다. 다양한 그림과 도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화장실의 낙서를 보면 ‘손으로 쓰기’의 이런 강점들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동굴 벽화와 유사한 기원을 가진 그 낙서들은 작가의 기원과 욕망을 그림과 글을 섞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작 당시의 정서까지도 그대로 전달된다. 컴퓨터로 쓰인 원고에는 여간해서 작가의 창작 당시 정서를 단박에 알아채기 어렵다. 글은 대체로 똑같은 크기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어 한참을 읽어야 그 글자들의 강박증적 배열 속에서 어떤 감정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10 15 20

그러나 ‘손으로 쓰는’ 이들이 정말 부러울 때는 바로 이럴 때다. 《칼의 노래》의 저자인 김훈 선생은 글을 쓰러 여행을 떠날 때, 거의 가지고 가는 게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운주사 부근에서 글을 쓰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냥 그 동네에서 적당한 방을 구한 후, 주인에게 작고 낮은 책상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는 동네 문구점에 가서 연필 몇 자루와 종이를 구해 와 집필을 시작하는 것이다. 얼마나 가볍고 간단한가. 그뿐 아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윈도우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도 그의 원고를 날려버릴 수 없다. 선생은 1kg도 안 되는 원고를 챙겨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25

그렇지만 컴퓨터 없이는 글을 쓸 수 없는 나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치를 누릴 수가 없다. 몇 년 전 멕시코와 과테말라로 취재를 떠나 아예 그곳에서 머물며 소설을 쓴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우선 노트북 컴퓨터와 배터리, 그리고 3m는 족히 되는 어댑터와 전원 연결선을 챙겨 넣었다. 그뿐이라. 마우스와 키보드도 따로 준비했다. 노트북의 좁은 자판과 불편한 터치패드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만 해도 무게가 대단했다. 혹시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들이 날아갈 때를 대비하여 몇 장의 프로그램 CD도 준비해야만 했다. 화물로도 부칠 수 없어 언제나 등에 지고 걸어 다녀야 하니 더운 나라에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테말라에 자리를 잡고 글을 써 나가다 보면 그 글을 종이로 프린트해 읽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것을 플로피디스크에 담아 시 중심가에 있는 인터넷카페로 나가 1장에 1달러씩 주고 프린트를 해온다. 이런 짓을 계속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싶어 연필 몇 자루와 A4지 몇 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김훈 선생을 부러워하게 된다. 컴퓨터로 소설을 쓴다고 해서 김훈 선생보다 꼭 빨리 쓴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연스레 이 쇠덩어리에 대한 회의가 꾸물거리며 솟아오른다. 그렇지만 이 글 역시 컴퓨터로 쓰고 있다. 손으로 쓰기에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30 35 40

또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미국에 갔을 때 일이다. 인터넷을 연결하려 했더니 묵고 있는 호텔에선 전화 모뎀¹ 밖에 안 된다고 했다. 전화로 접속하려면 우선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고 접속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호텔 매니저에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여 내 방으로 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노트북 컴퓨터에는 전화 모뎀이 아예 달려 있지 않았다. 시내 컴퓨터 가게에서 팔 거라는 매니저의 말에 시내에 갔다. 가게의 점원은 “요즘 전화 모뎀 쓰는 사람이 어딴어요? 저흰 안 팔아요.”라고 말했다. 전화 모뎀 쓰는 사람도 없는 나라의 호텔에서 왜 전화 모뎀으로만 인터넷을 연결하는가? 그리고 왜 내 컴퓨터엔 그게 없는가? 화가 났지만 참았다. 매니저의 죄도, 점원의 죄도, 내 죄도 아니었다. 45 50

돌아와서 매니저에게 말했다. “전화 모뎀 안 판다는데요.” 매니저는 아마 대형 쇼핑몰에서는 팔 거라고 했다. 그 대형 쇼핑몰이 어디냐고 묻자 그녀는 자동차로 20분만 가면 된다고 했다. “버스는 없나요?”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버스는 안 간다고 했다. “전화 모뎀 때문에 차를 살 수는 없지요.” 농담이랍시고 말하다가 문득 그런 사람이 왜 없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55

¹전화모뎀 - 전화선에 접속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장치

Text B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2 번 문제에 답하십시오.

Text B

다음은 한국발명진흥회가 1985년에 발표한 <미리 가 본 서기 2000년> 중 일부입니다.

서기 2000년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앞으로 15년 동안 과학 문명은 지난 1세기에 버금가는 발전을 가져와 서기 2000년에는 상상치도 못한 사실들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야단들이다.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발전된다는 것인가. 본지 편집자는 15년을 건너뛰어 서기 2000년으로 달려가 보았다. 서기 2000년. 편집자가 달려간 서기 2000년은 과연 1985년을 살던 사람들이 야단을 떨 만도 했다. 한마디로 발명과학 문명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서기 2000년의 모습을 분야별로 스케치해 보았다. [편집자 주] 5

급변하는 세상

서기 2000년.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했다. 1985년만 해도 세상은 이렇게까지 빨리 변하지는 않았었다.

기차만 해도 그렇다. 옛날에는 서울과 부산 간을 달리는 가장 빠른 기차는 ‘새마을호’였다. 서울에서 부산 간을 네 시간 삼십 분에 달린다 해서 ‘초특급’이라고까지 불렸다. 10

그런데도 서기 2000년에 생각하면 그렇게 느린 기차를 타고도 다들 어떻게 참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 4시간 30분을 기차 속에서 무료하게 낭비해 버렸더니 말도 안 된다. 최고 시속 660km로 달리는 서기 2000년의 기차는 강력한 자석의 힘으로 50t이나 되는 객차가 공중 10층 높이에 뜬 채 달리고 있다. 이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 달리는 순항 속도는 550km. 그러나 대전과 대구에서 2분씩 정차하는 관계로 이것까지 넣으면 평균 시속은 510km가 된다. 이 기차의 출현은 1905년의 우리나라 첫 기차 출현에 버금가는 대사건이었다. 기차를 타면 곧바로 내릴 준비를 해야 하니 대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 사이라면 화장실에 갈 틈도 없다. 기차에 올라 좌석을 찾아 손가방을 선반에 올려놓고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차내 자동판매기의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노라면 스피커에서 대전 도착을 알린다. 단 19분 만에 대전에 도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이 ‘일일생활권’에서 ‘오전 생활권’으로 바뀌었다. 오전 생활권이란 아침에 일찍 출근한 사람이 부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즉시 역으로 달려가 열차를 이용해 부산까지 가서 1시간 회의를 마친 후 서울에 다시 돌아와도 정오 이전이란 뜻이다. 마시고 있던 커피를 그대로 두고 서울서 부산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보니 그 커피가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가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겠지만 그럴싸하게 느껴질 정도의 시대가 오전 생활권의 시대란 것이다. 15 20 25

이러한 교통수단의 고속화는 육상, 해상, 항공 교통에도 혁신을 일으켜 교통 시간을 현저히 단축했으며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했다.

통신의 발달은 지구촌 시대를 열어 놓았다. 서울과 뉴욕 사이의 거리 1만 4천km를 단숨에 좁혀 주는 국제 TV 전화가 개통된 것이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세계의 어느 누구하고도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 얼굴 표정을 읽으면서 즉시 직통 자동교환 TV 전화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구 전체가 이웃이 된 지구촌 시대라 활짝 열린 것이다. 30

서기 2000년은 ‘컴퓨터 왕국’이다. 인간의 의식주가 어느 것 하나 컴퓨터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 컴퓨터는 인간의 가장 충실한 반려가 되어 있다. 주인을 알아보고 대화하며 주인을 위해서 봉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이 지금의 전화처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는 관청, 은행, 시장 등과 이어져 모든 일을 대신해 준다. 이 때문에 컴퓨터 없이는 살아가기조차 어렵다. 35

1985년대를 살던 사람들은 꿈같은 이야기들이라고 하겠지만 이 정도의 일은 아주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현실화는 우리나라 기술만으로도 1995년이면 가능하다는 사실이 K사와 S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개인용 컴퓨터 등은 이미 90년대에 각급 학교에 보급되었고 1백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전화로 수업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은 학교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된다. 40

또한, 도서관에 가서 일일이 자료를 찾지 않아도 컴퓨터에 연결된 전화기만 들면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자기의 공부방에서 얻을 수 있게 돼 이러한 일에 익숙치 못한 구세대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서기 2000년에는 편지도 컴퓨터를 통해 주고받고 있다. ‘전자 우편’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상대방이 보낸 편지가 컴퓨터에 기억되는 것이다. 전화가 전화번호를 돌려 통화가 되듯이 컴퓨터에도 번호가 있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45

서기 2000년의 출판 분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 가장 주된 까닭은 기술이나 과학 문명 발전보다는 출판 활동에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돼 왔었기 때문이다. 서기 2000년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책에 대한 관심이 지난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것도 출판이 활기를 띠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양서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국민들의 독서욕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서기 2000년의 출판사들은 앞을 다뤄 출판의 신기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고의 작성과 정리, 조판, 배열을 모두 컴퓨터가 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출판사의 편집자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원고를 교정할 뿐만 아니라 무수한 입력 자료 중에서 필요한 원색 슬라이드나 삽화를 골라 쓰고 있다. 50

BLANK PAGE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o avoid the issue of disclosure of answer-related information to candidates, all copyright acknowledgements are reproduced online in the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Copyright Acknowledgements Booklet. This is produced for each series of examinations and is freely available to download at www.cambridgeinternational.org after the live examination series.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tself is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